

사우회장배 바둑대회와 등산대회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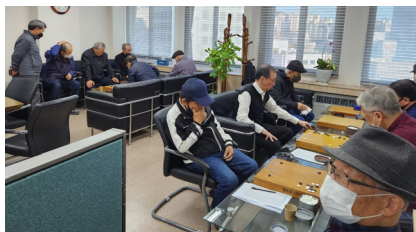
10월 19일(수) 오전 사우회 회의실에서 사우회장배 바둑대회가 열렸다. 이창호 동회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장명호 사우회장은 “오랜만에 사무실이 시끌벅적하니까 너무 좋다.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창호 회장과 정태식 총무께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데 더 많은 회원들이 오시지 못

해 아쉽다. 코로나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국하는 동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총 22명의 기사들이 급수에 따라 A(1급~5급), B(6급~10급) 두 조로 나뉘어 약 4시간에 걸친 토너먼트 대국을 진행한 결과 A조 우승은 김진홍(관리), 준우승 한박무(보도), B조 우승 이범수(업무), 준우승 선남준(관리)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사무처에서는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A조 우승 김진홍(관리)



B조 우승 이범수(업무)

10월 26일(수) 코로나로 중단됐던 등산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오전 10시 30분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앞에 모인 47명의 회원들은 박한성 동회회장의 선도로 10여 분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뒤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순례길에서 1구간 소나무숲길까지 6km를 걸었다. 김세중(91세), 노시창(90세) 등 90대 회원들도 참가한 이날 산행은 쾌청한 날씨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북한산의 가을 정취가 즐거움을 더했다.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권혜원 씨로부터 4.19묘지 조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2시간여 산행을 마무리한 회원들은 단골식당인 ‘거북이네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눴다.

식사에 앞서 장명호 사우회장은 회원들에게 ‘건강을 다지고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단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무처는 산행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타월을 전달했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9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정광수(기술) 30만원(3회)
- ▶이길섭(편제) 20만원
- ▶신동수(관리) 20만원
- ▶金鍾賢(기술) 10만원(2회)
- ▶고일미(편제) 10만원
- ▶한귀현(관리) 10만원(2회)

- ▶안호선(관리) 20만원(5회)
- ▶정화용(관리) 20만원
- ▶오청엽(관리) 20만원(2회)
- ▶정환웅(편제) 10만원(2회)
- ▶김영근(편제) 10만원
- ▶양홍열(기술) 7만원(2회)



정광수



안호선



이길섭



정화용



신동수



오청엽



金鍾賢



정환웅



고일미



김영근



한귀현



양홍열

사무실 리모델링 자축自祝 다과회

9월 21일(수) 오후 2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자축하고 공사를 지원해준 MBC에 감사사를 표하는 다과회가 열렸다.

사우회에서는 차인태, 김수량, 신대근 등 前임원들과 정연호, 양영철, 최 천, 조승필, 김상옥, 김승월 등 現임원들이 참석했으며, MBC에서는 정호식 부사장과 자산관리팀장 김민형 부장, 관재구 매팀장 전기택 부장, 경영지원팀장 김혜진 부장, 변창욱 사원 등이 참석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된 건물이라 미관도 흉하고 시설도 낡아 사무 공간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환하고 깨끗해진 공간을 대하니 마음까지 상쾌하고 시원하다. 리

모델링을 지원해준 MBC 경영진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사를 총지휘한 전기택 부장과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노고를 겪은 자산관리부 윤항근 사원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사진)

잠시 공사 전 모습과 공사 후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감상한 뒤 차인태 전 회장과 정호식 부사장의 건배 제의와 덕담을 끝으로 자리는 마무리 됐다. 사무처에서는 시루떡과 백설기, 과일, 음료수 등을 준비해 모임에 제공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사무실에도 떡을 나눴다.



회/원/동/정



▶ 김낙현(관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화인협동조합'에서 남양주 다산동에 F&B 2호점인 '동천'을 오픈했다. '동천'은 참치전문 일식당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 文記會(회장 박노홍)

9월 30일 '두메라'에서 20여명이 참석해 월례모임을 가졌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이세강 회장이 참석해 하반기 세미나 일정 및 재정확충 방안 등을 설명했다.



▶ 기술부문 합동 미수연

10월 14일 고양시 '원당텃밭농장'에서 올해 88세가 된 고흥복, 권태수, 김원기, 안흥식, 이한익 회원들을 위한 기술부문 합동 미수연米壽宴이 열렸다. 40여명의 회원들이 3시간여 동안 함께 한 이 행사는 60년대에 기술부문에 입사한 70세 이상 회원들의 모임인 '6070회'(회장 박종규)가 주관하고 박한성 회원이 요리와 식음료를 지원했다.



▶ 장명호(사우회장)

올해 9순을 맞는 민용기 선배님을 모시고 차인태, 편일평, 김우룡, 심규성, 이궁희, 윤건호, 지석원 회원들과 11월 10일 분당의 한 식당에서 축하 오찬을 가졌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정길용(관리)

1987년 기획실 입사. 보도제작운영팀장, 경영지원팀 국장. 2022년 정년퇴직.



정종훈(편제)

1987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미술감독 등 근무, 2022년 정년퇴직



선철규(보도)

1987년 보도국 입사. 뉴스편집부에서 뉴스CG제작 등 담당. 2022년 정년퇴직.



박평욱(관리)

1984년 총무국 입사. 문화사업국 사업부, 심의실 국장급 위원. 2019년 정년퇴직.



오정우(관리)

1986년 입사. 감사실장, 경영국장, 미디어사업본부장, 포항MBC 사장 등 역임. 2017년 퇴사.



양영욱(관리)

2003년 경영국 입사. 경영지원국 안전관리팀 국장 등 근무. 2022년 정년퇴직.

송년모임 12월 8일(목) 5시
『63컨벤션센터』

올해 사우회 송년모임은 12월 8일(목) 오후 5시에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단체활동이 조심스럽지만 서로 유의하면서 오랜만의 반가운 해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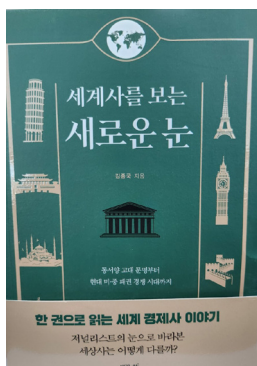
참석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필히 사무처 휴대전화(010-5944-7416)에 문자(000참석)로 미리 연락을 주셔야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역작力作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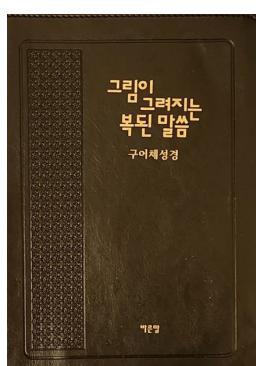
김종국(보도)

경제학과 출신으로 보도국 경제부장, LA특파원, 본사 사장을 지낸 김종국(보도) 회원은 세계 경제와 역사에 대한 지적 탐구심으로 유럽과 중국을 여러 차례 여행한 후 4년간의 자료 정리를 거쳐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세계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출간했다. 경제를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를 조명한 이 책에서 저자는 첫째, '어떤 요소가 경제와 역사를 움직이는가'. 둘째, '서구와 중국은 어떤 요인에 의해 다른 경로로 발전해왔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 욕망, 이성, 힘, 문화, 제도'라는 여섯 가지 관점에서 동서양 경제와 역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최창섭(ANN)

2004년 아나운서국장을 정년퇴직한 뒤에도 5년간 프리랜서로 더 활동했던 최창섭(ANN)회원은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구어체 성경』을 출간했다. 성경 낭독을 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나름대로 읽기 쉬운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니 무려 10년 10개월의 긴 시간 동안, 1937년에 발행된 신·구약성경과 히브리·헬라어 직역성경 그리고 스트롱코드성경을 포함해 한글성경 10권, 영어성경 5권, 성경사전, 성경주석, 성경지도, 히브리어·헬라어사전 등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대조해가며 성경을 구어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한다.



강성주(보도)

보도국장, 북경특파원, VOA서울지국장, 포항MBC 사장 등을 지낸 강성주(보도) 회원은 『피를 부르는 영토분쟁』이라는 549페이지에 달하는 역작을 출간했다. 18, 19세기 영토를 확장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분쟁(1부)과 제국의 흔적을 간직한 유럽에서 저장도로 일어나는 분쟁(2부), 뿌리 깊은 팔레스타인 분쟁(3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독도 논쟁(4부), 중국해와 오후츠크해 그리고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줄기에서 계속되는 아시아 지역 분쟁(5부), 아프리카와 남미, 극(極)지방에서 진행되는 분쟁 등을 담았다.



경조사항

구순: 최근수(편제) 33.11.24
김종순(기술) 33.12.5
팔순: 이영생(관리) 43.11.16
안영식(기술) 43.11.20
표찬일(편제) 43.12.2
신대근(보도) 43.12.8
권항택(전주) 44.1.10
고희: 최 천(기술) 53.11.24
김흥기(편제) 53.12.13
이해성(보도) 53.12.15
김호준(보도) 53.12.21
회갑: 김영만(관리) 62.11.26
송성호(관리) 62.12.29
결혼: 전형찬(관리) 딸 10/10
박용규(기술) 아들 10/22
신동수(관리) 딸 10/30
오정우(관리) 아들 11/6
최영호(편제) 아들 11/12
정찬래(편제) 아들 11/20
부음: 최신영(업무) 장모상 9/16
金鍾賢(기술) 모친상 9/22
강진택(관리) 장모상 9/25
안영순(관리) 모친상 9/29
최종결(보도) 모친상 9/30
이화옥(업무) 장모상 10/3
함윤수(편제) 배우자상 10/8
이상운(기술) 장모상 10/12
양영철(보도) 장인상 10/21
심재정(업무) 33.11.30
민용기(편제) 33.12.27
이웅재(관리) 43.11.16
김상호(대구) 43.11.26
김규수(기술) 43.12.3
정충성(보도) 43.12.22
김현국(관리) 44.1.15
우종범(편제) 53.12.13
조기양(보도) 53.12.15
김재철(보도) 53.12.18
이상용(보도) 54.1.5
이원영(기술) 62.12.15
조미숙(관리) 63.1.10
최현곤(기술) 아들 10/15
안광한(편제) 아들 10/26
이상훈(관리) 아들 11/6
서인성(보도) 딸 11/12
노승화(기술) 딸 12/3
김만섭(기술) 아들 12/3
정환웅(편제) 부친상 9/16
김기배(기술) 장인상 9/24
서경주(편제) 장모상 9/28
조덕형(기술) 부친상 9/29
전재철(보도) 모친상 10/3
윤 혁(편제) 장모상 10/6
이길섭(편제) 장모상 10/10
최영달(편제) 부친상 10/13
방기전(기술) 부친상 11/3

연회비

평생회비: 정길용 선철규 이동원 박평옥 정종훈
2022년: 노홍식 박문식 박용규 전형찬 마병두 김경일 박성배 정연호
오정우 신해명 이효석 오명균 김택곤 황종휘 김종연 김동성
2023년: 양홍열 이용구 김귀현
2024년: 장정기 2025년: 허경희 2026년: 이명자 2027년: 김일중

주소 변경 / 신규

편제: 고일미 경기 남양주시 호평로 149 (호평마을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봉필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힐스테이트)
소원영 강원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송인혁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윤창호 인천 서구 검단로 786 (퀸스타운길훈아파트)
정종훈 경기 파주시 송학1길
보도: 고대석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05 (이원리버빌아파트)
김성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11 (밀레니엄리젠시)
목철수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6 (중앙하이츠아파트)
선철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큰마을대림,현대아파트)
정창남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진홍상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64 (인덕원삼호아파트)
기술: 김순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 (매탄동, 삼성2차아파트)
업무: 김은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3
관리: 오정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이동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정길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가길
최한상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8-7 (진도아파트)
홍용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산성역포레스티아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黃京子(ANN)
1월 22일 별세.
향년 68세. 1975년
아나운서 입사.
1978년 퇴사.訃音を
늦게 전달 받았음.



金基俊(관리)
10월 8일 별세.
향년 83세. 1979년
총무국 입사.
총무부 근무.
1993년 명예퇴직.



李在旼(편제)
10월 26일 별세. 향
년 78세. 1969년 TV
PD 입사. TV제작국
부국장, MBC아카데
미 교수 역임. 1994
년 퇴직.



金永基(기술)
11월 4일 별세.
향년 82세. 1977년
기술국 입사. 토당송
신소 등 근무. 1998
년 퇴직.



金晙洙(편제)
9월 28일 별세.
향년 67세. 1982년
PD 입사. 라디오본
부장, 원주MBC 사
장, 미술센터 사장
등 역임



金成熙(편제)
10월 13일 별세.
향년 80세. 1964년
입사. 라디오PD, TV
제작국장, 제작이사,
전무이사, 프로덕션
사장 등 역임



崔宗洙(편제)
10월 30일 별세. 향
년 76세. 1970년 TV
PD 입사. TV제작국
위원, PD연합회장,
MBC프로덕션 사장
역임



曹東鎬(관리)
11월 9일 별세.
향년 91세.
1969년 총무국 입사.
비상계획부 근무.
1982년 퇴사.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우회 협력업체

〈세란병원〉
▶종합검진, 성형/피부 시술 등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
▶예약 전화 1577-0196

〈JC빛소망 안과〉
▶백내장 수술, 시력 교정 등
▶여의도 맨하탄빌딩 6층
▶예약 전화 1566-6644

〈C&G라이프〉
▶상조관련 서비스, 후불제
▶박성준 대표(010-8761-6643)
▶전화 1544-4744

〈중앙추모공원〉
▶납골당, 수목장 등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전화 1577-5869

〈비비드플라워〉
*화환, 조화, 화분
*상암동 MBC구내
*박소현(010-4441-5254)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722-7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선배를 떠나보내며



조정선(편제)

〈장면1〉 한 남자가 업무스트레스 때문인지 과음을 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를 서둘렀으나,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큰길의 길옆에 버려진 채 새벽이었다. 옷가지는 찢겨 있었고 지갑은 분실. 그는 하염없이 걷다가 희미한 불빛의 여인숙 간판을 발견한다. 마침 새벽의 찬이슬을 느끼러 나온 주인장이 멀리서 걸어오는 그 남자를 쫓 응시하고 있다가 그가 입구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로 다가올수록 나의 확신도 커졌다. 이건 운명이다. 당신을 재워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점심 때 여의도 서울상가 ‘고려정’에 김정수 PD가 우스꽝스런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유행하던 나팔

바지에 팔이 늘어진 T셔츠, 치수가 맞지 않은 험령한 점퍼 차림이었다. 이내 사연이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나를 밀어낸 거야. 휴머니스트에다가 로맨티스트인 여인숙 주인장이 전화를 내줘서 ‘유동희’에게 연락해 옷을 가져오라고 했지. 허허” 취객을 상대로 한 택시강도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도 낙천적일 수가!

〈장면2〉 1987년 1월, 싱글빙글쇼 MC의 급작스런 하차에 대타로 들어온 ‘김혜영’의 진행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더블MC의 장군명군식 대답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느꼈을 거다. 이 해 봄철 개편에 6년 차의 김정수PD가 연출자로 발탁된다. 어느 날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게 됐는데 두 사회자가 상황연기를 하면 딱 알맞은 내용이였다. “김혜영 씨는 콩트를 잘하는 군. 이걸로 방향을 잡읍시다” 이렇

게 싱글빙글쇼는 콩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금까지 ‘싱빙’의 대표이미지로 회자되고 있는 ‘88돌도사’와 ‘폴이엄마’가 이때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이 30여년 영광을 누리게 된 데에는 누가 뭐래도 김정수PD의 공이 크다.

〈장면3〉 라디오본부에 ‘나물산악회’라는 이름의 산악회가 있었다. 아무리 공지를 해도 멤버가 3명(말아야 4명)뿐,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렇게 지어졌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칼바람 속에서 파끈한 된장국을 보온병에 넣어온 김정수PD 덕분에 도봉산 포대능선의 산불감시초소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사소한 배려의 징표가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바로 그날이었다.

〈장면4〉 9월 28일 김정수 PD의 부고가 났다. 그보다 딱 20일 전인 9월 8일, 90년대 입사한 후배 여섯이 ‘그를 오래 기억할 나무 한 그루

심자’는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아직은 정신이 또렷했던’ 그에게 나무 몇 그루를 보여주며 ‘하나 고르라고 했다.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가 택한 수종은 용송(龍松)나무. 다 자라도 150cm밖에 되지 않지만 기품 있고 강인해 보이는 딱 김정수PD의 이미지 그대로였다.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멋지게 살고 크게 이뤄내신 작은 거인 김정수 선배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내세를 기원합니다.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눈물

〈지난 9월 28일 별세한 김정수 회원이 1998년 MBC사보에 썼던 글입니다〉



故김정수(편제)

나는 눈물이 참 많다. 특히 운다. TV를 보다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면 바로 눈시울이 붉어진다. 눈물이 말랐다는 생각이 들 때면 슬픈 영화를 보러 간다. 아예 울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다.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듯 엉엉 울었다. 잘 우는 것도 유전일까?

아버지도 눈물을 사랑하셨던 듯하다. 아버지는 마흔이 넘어 사업에 실패하신 뒤 술로 사시다가 내가 군에 있던 오십 중반에 세상을 떠셨다. 아버지께겐 드러나지 않은 꿈이 있었다. 가수나 배우가 아니었나 싶다. 젊은 시절 기타를 메고 짙은 빛바랜 사진 속의 아버지, 술에 취하면 영화 ‘길’의 테마곡을 흥얼거리시며 ‘잡파노(안소니 퀸)’처럼 우시던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가슴에 묻고 있다.

‘판파라’를 꿈꿨던 아버지는 형제들 중 내가 가장 판파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지 유독 나를 데리고 극장에 자주 가셨다. 덕분에 나는 ‘미성년자 입장불가’ 영화를 많이 봤다. 그 시절 ‘신성일’은 내

우상이었고 글래머 ‘김혜정’과 눈이 흑진주 같은 ‘문 희’를 특히 좋아했었다.

내 ‘끼’를 발견하신 아버지는 나를 극단에 넣으셨다. 1963년 당시 서울에는 ‘새들’이라는 어린이극단이 있었고 부산에는 ‘갈매기’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갈매기’ 단원이 됐다.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에서 남자 주인공 ‘치르치르’를 맡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중에는 서울로 진출해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있었던 ‘전국 아동극 경연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장래의 신성일’이 되고 싶었던 내 꿈은 그러나 쌓이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잔치를 벌이고 나서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가신 부모님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두 살 위인 형과 둘이 부산에 남아 자취를 하며 살아야 했던 당시 위로가 돼준 것은 금성사에서 만든 ‘골드스타 라디오’였다.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 나는 ‘꼬부랑노래’라 일컬었던 팝송으로 영어를 익히고 있었다. 당시 부산에는 ‘하야리야’라는 미군부대를 위한 AFKN이 방송되고 있었고, 영

어공부에 재미를 들인 형이 그 방송을 즐겨 들은 덕분에 나도 곁다리로 팝송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이었다. AFKN에서 들었던 미국 노래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까지 흥얼거렸던 남 진의 ‘가슴 아프게’나 ‘우수’를 멀리 떠나 버리게 했다. 처음으로 가사 전부를 외워서 친구들에게 뽐내며 불렀던 팝송은 ‘Love is blue’였다.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했던 내게 라디오 청취는 유일한 문화생활이었다. 그렇게 팝송에 눈을 뜬 나는 그런 노래들을 방송하는 프로그램들만 찾아다녔다.

AFKN의 ‘울프맨 잭 쇼’, 케시 케이즈미 진행하던 ‘American Top 40’ 등은 아주 즐겨 들었던 프로그램이었다. 1970년,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나의 ‘방송 듣기’는 매우 다양해졌다. 동아방송의 ‘3시의 다이얼’, 기독교방송의 ‘세븐틴’ 등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종환, 피세영은 내가 우러러본 사람들이었다. 당연하게 내 꿈은 ‘방송에서 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팝송 가사 외우기가 내 영어공부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형성하게 해준 것은 분명했다.

타고난(?) 목소리와 풍부한 팝 상

식 덕분에 방송반에 불려갔다. 2학년 때 열린 첫 빙송제에서는 ‘영광의 DJ’가 됐다. 하얀 칼라에 뽕떡모자를 쓴 창덕여고생과 교복은 볼품 없었지만 얼굴은 예쁜 진명여고생들도 왔었기에 신나고 멋있게 DJ 데뷔전을 치렀다. 방송제 말미에 TBC의 박종세 아나운서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준 칭찬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큰 격려가 됐던 것만은 분명했다)

‘신성일’에서 ‘남 진’으로, ‘남 진’에서 ‘이종환’으로.....그런 나의 인생유전流傳은 1982년 MBC 라디오 PD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리고 16년. 지금의 내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몹시 궁금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지만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게 삶의 묘미인지도 모르겠다.

내 젊은 날에 ‘문화 사대적’인 이런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팝송프로그램을 맡은 적이 없다. 지난날의 추억을 살려 (현재 김창완 씨가 DJ를 하고 있는) FM의 ‘골든 디스크’ 진행이나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맡겨주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르네상스형 교수 방기천(기술) 회원



방기천(기술)

▶ 최근 시인으로 등단하셨죠? ‘공학도 시인’이라는 애기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지난 달에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투영하다 보면 생각의 깊이도 달라지고 거기에서 상상詩想도 떠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물에 몰입된 상태에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제 시에는 저의 삶도 담고 인생의 어떤 메시지도 담는, 그래서 ‘인생의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또 인간의 오감五感を 전달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즉 표현 미디어를 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SNS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귀중한 문학작품들이 확산되고 교류되는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족한 ‘디지털문인협회’ 부회장도 맡게 됐습니다.

▶ 대학에서 전공은 전자공학인데 석사는 경영학, 박사는 경제학으로 학위를 취득하셨더군요. MBC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1984년 MBC에 입사해서 11년간 기술연구소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이듬해에 선거 개표방송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입시경쟁률 방송,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정보 방송, 증권시세 방송, 여론조사 방송 등 컴퓨터시스템을 방송에 인용하는 각종 정보방송시스템을 여럿 개발했습니다.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 정보처리학석사와 전산통계학박사학

위를 취득한 것이구요.

사실 이전에는 방송사에 ‘실시간 정보방송’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데 어떤 상황이 실시간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자료를 미술 파트에서 미리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금메달을 딸지 은메달을 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입사할 무렵부터 컴퓨터에 각종 정보 축적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 정보방송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MBC의 정보방송은 당시 다른 방송사보다 한참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나고 보람있는 직장생활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MBC를 떠난다는 생각을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항상 앞서가는 MBC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인지 고심하면서 자부심이 가득한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사학위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직장인으로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뒷분들 눈치도 보이고 제 자신 ‘이건 회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차에 당시 개교 2년 차인 남서울대학교에서 마침 전산통계학 분야 교수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어서 제 전공과 일치하니까 응하게 된 거죠. 최고로 인정받는 직장인 MBC보다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대학생들이겠지만, 제 인생 일기장 한 페이지를 ‘가르치는 일’로 새롭게 써보자는 생각도 있었구요. 그래서 어렵사리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처음에는 컴퓨터학과 교수로 갔

는데 이듬해 3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방송 제작이나 영상 기술뿐 아니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웹 개발자라든지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분야도 두루두루 아우르는 폭넓은 멀티플 미디어학과를 만든 거죠. 지금은 여러 대학에 멀티미디어학과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과정도 새로 만들고, 촬영 장비같은 실습 기자재도 디지털을 베이스로 해서 최상으로 갖추느라 애를 좀 썼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줬구요.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도 처음 만드셨죠?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디지털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되면 디지털콘텐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14년 동안 회장을 했습니다. 어떤 학회가 학회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권위있는 학술진흥재단지에 얼마나 등재됐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황무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학회가 제대로 인정을 받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를 통과해서 10월 1일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목회자 양성 과정이나 해외 교육 선교, 다문화가정 사역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캄보디아의 노튼대학교

에 초청교수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회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방문하게 됐었고 그들과는 지금까



지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말이나 한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가 먼저 확실한 지식과 교육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멀티미디어 교수면서 동시에 ‘멀티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보이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나 일반 대중들과의 소통이나 정보 교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 정보 문화 21회’ 창립 멤버로서 여성들의 정보 습득, 정보 활용에 관계했구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자회장도 했고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아버지회장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칭찬영웅운동’ 1기 강사, ‘국민행복멘토단’ 부회장으로도 활동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가운셀러협회 이사로서 조직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머스피치 강사, 소통지도사로도 일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근본적으로 제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8월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편히 쉬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담 편집장>



〈그 시절 이야기〉

환호의 무대가 막을 내리기 직전 장내는 공포의 아수라장이 되고..



차인태
(前사우회장)

‘MBC 10대 가수 가요제’는 그 해 가요계의 총결산이고 가수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저울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수많은 노래 중에서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와 가수를 뽑아 ‘가수왕’이라는 칭호를 안겨주는 연말 프로그램의 백미다. 요즘엔 연예인을 접할 기회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음반 개발로 손쉽게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십여 명의 최고 인기 가수들을 한꺼번에 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시민회관 입장권 얻기가 몹시 어려웠다. 출연하는 가수들에게도 두 장씩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퀴즈 상품으로도 인기가 최고였고, 관계 요로에 인사치레로 생색내는 데도 더없이 좋은 물건이었다. 시청률 면에서도 TBC나 KBS보다 훨씬 앞선 MBC에서 뽑는 가수왕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관심에 천 오백여 객석은 초만원에 이뤘고 그 실황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전국에 동시 방송됐다.

1972년 12월 2일 저녁 8시 27분. 장소는 서울시민회관. MBC 창사 11주년 기념 『MBC 10대 가수 청백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순간이었다. 나는 라디오 현장 중계를 맡아 무대 왼쪽 중계석에 기술진과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무대와 무대 뒤 그리고 객석을 모두 볼 수 있어서 방송에 가장 적합한 자리였다. ‘TV쇼에 무슨 라디오 중계냐’고 할지 모르지만 70년대 초반 해도 수상기의 보급이 미약했다. 시골에서 편찮게 사는 집 안방 캐비닛에 모셔놓은 수상기는 이웃 사람들이 오면 잠시 시청하고는 곧

다시 잠그는 형편이었으니 상대적으로 라디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가수의 등,

퇴장이나 무용단의 춤, 막간의 움직임이나 객석의 열기 등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었다. 그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시 가요계의 최대 라이벌인 나훈아와 남진 중 누가 ‘MBC가수왕’이 되느냐였다. 생김새와 창법, 노래 스타일과 이미지가 대조적인 두 가수의 대결은 이미 장안의 화제가 돼 있었다.

그해 수상자는 신인가수상에 김세환, 정미조, 특별가수상에 김추자, 10대 가수에 김상진, 나훈아, 남진, 이상열, 이용복, 김상희, 문주란, 정훈희, 조미미, 하춘화였고, 최고 인기 가요는 ‘물레방아 도는 데’와 ‘님과 함께’였다. 흰칠하고 잘 생긴 변웅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가수왕’에 뽑힌 것은 남진이었다. 환호와 박수 속에 앵콜곡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본사 주조정실에서 후CM이 이미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TV중계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관객들은 일찌감치들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고 무대 뒤에선 땀으로 범벅이 된 가수왕 남진이 카메라 세례 속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대막大幕이 반쯤 내려오고 조명이 어두워졌는데도 무대 천장 오른쪽 뒤편에서 작은 불꽃이 계속 터지면서 약간 환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무대 뒤편에서 ‘불이야’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 마치 불꽃놀이에서 화약이 터지는 것처럼 ‘타타닥’하면서 터지는 불꽃은 천장에 내걸린 여러 개의 중간막으로 번지더니 삽시간에 큰 불꽃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불이야’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장내를 빠져나가려던 사람들이 크게 술렁대기 시작했다. 뒷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문밖으로 나갔지만 중간 좌석 앞에 있던 사람들과 2층에서 ‘불이야’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순간 이성을 잃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천장이 뚫려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는 무대 쪽에서 일어난 불은 순식간에 대막으로 옮겨붙어 불길이 커졌고 장내는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이다. 복도와 의자 사이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밀고 뛰고 넘는 가운데 비명과

아우성이 뒤엉켰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불에 타 숨진 사람보다 넘어져 밟히고 계단에서 밀려 눌리거나 연기에 질식사 숨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 1,2분만 불이 늦게 났어도 50여 명이 넘는 사상자는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방화 순간부터 관객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분여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우리 라디오 중계팀은 무대 옆쪽에 그냥 있었다. TV와는 달리 라디오는 후CM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진행상 앵콜송-후CM(3~4분)-클로징 멘트-연주소 넘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클로징 멘트 문안을 쓴 종지와 마이크를 들고 광고가 끝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서 있었다. 실은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뒤에 불이 난 것을 봤지만 ‘불이 그렇게 쉽사리 번지기야 하겠냐’는 짐작과 오프닝 멘트를 했으면 클로징 멘트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를 포함 그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기술팀 김광곤, 조병락, 이만오, 고흥복 씨 등은 다른 제작스텝들과 직원들에게 ‘침착해 침착해~’ 고래고래 소리치며 한편으로는 손에 잡고 뿔 수 있는 장비들을 잡싸게 챙기고 있었다.

귀에 꽂은 리시버에서는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특집이라서 광고는 보통 때보다 길었다. 아래층 객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출구에서만 아비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무대 중간에 걸린 대막에서 우리 중계석까지는 불과 6~7미터. 불길 때문에 뺨이 화끈거렸다. 연기가 서서히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마침내 후CM이 끝났고 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서울 시민회관에서 보내드린 문화방송 창사 11주년 기념 『MBC 10대 가수 청백전』 실황을 들으셨습니다. 프로듀서 박경식, 엔지니어 이만오, 아나운서 차인태였습니다. 마이크를 정동 연주소로 넘깁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뛰었다.

무대 뒤편에서 시민회관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고 악쓰는 소리, 객석 어디선가 들리는 신음소리들을 뒤로 한 채 무조건 뛰었다. 객석 뒤편 임검석과 로비의 매점은 박살이



났고 입구에서 부상자를 끌어내는 사람, 가족을 찾는 고함소리,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등으로 시민회관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땐 김광곤 씨 손에는 연결 케이블이 빠져나간 콘솔 하나, 내 손에는 코드 없는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다. 어떻게 본사까지 왔는지 모른다. 정동 사옥에 와서는 긴급방송에 매달렸다. 토요일 밤 10시가 넘는 시각. ‘MBC 전 사원은 본사로 모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건지지 못한 TV 카메라 등 방송장비는 제쳐두고라도 행사에 왔던 시청자들과 MBC 가족 중에 많은 희생자가 났다. 특히 그 시각 시민회관 옥탑 부근에서 새해 예산작업을 하고 있던 관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깝고 죄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

최후의 목격자인 나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난생 처음 법정에 서서 당시 우리 회사의 세트 전기장식 직원의 ‘중실화 과실치사상 및 전기면허법 위반 사건’의 증언을 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시민회관 자체의 전기 누전으로 인한 실화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우리 직원은 10개월이나 구치소에서 고된 생활을 해야 했다. 시민회관 화재 사건은 MBC에게는 씻을 수 없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웠고 이후 방송 제작상 경종을 울려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지은 웅장한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설 때마다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되고 어찌다 이 노래가 나오면 서둘러 라디오를 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1992년 8월호 MBC가이드에서 옮김〉



국내 최초의 월드컵 중계방송



민용기(편제)

제22회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린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나는 52년 전인 1970년, TV개국 직후였던 MBC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점 중계방송을 했던 쾌거를 떠올린다.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한 열기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한 편이지만 당시만 해도 국제적인 월드컵 경기를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다. 멕시코 월드컵이 가까워지면서 긴장이 시작됐다. 멕시코 지역 프로그램 공급자와 거래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난 감했지만, 우선 내가 아는 미국 프로그램 공급자들에게 '월드컵 방송 판권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결과 멕시코 월드컵 주관 중계사인 '멕시코TV 아시아 판권 대행사'가 미국의 '마이켈슨 미디어'라는걸 알게 됐고 그곳과의 협의를 거쳐 33,000달러에 전 경기를 독점 녹화 중계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33,000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어서 과연 회사의 승인이 가능할지 은근히 겁이 났다. 더구나 TV개국 초라서 아직 회사가 자리도 잡지 않은 시기였다.

합의사항을 편성국장에게 보고하니 예상대로 '위에 보고해보라'고 한다. 상무에게 갔는데 그분도 역시 주저한다. MBC TV가 개국한 지 겨우 10개월.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라 누구라도 당장 결심하는 건 쉽지 않다. 우선 이러듯 큰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 게다가 월드컵 방송은 우리나라에선 미개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송이라 주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검토해보자' 정도는 기대했는데. 성공 여부는 미지수지만 우리나라의 축구 열기로 보아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경기녹화는 4년 전과 달리 필름이 아니라 테이프라고 했다. 내게는 분명하게 앞이 보이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미 가계약은 체결상태라 문제는 어떻게 회사를 설득하느냐였다.

혼자 며칠 고민하고 고민하다 묘안이 떠오른다. MBC를 출입하는 '일간 스포츠'의 정의명 기사를 만나 자초시종을 설명하고 독점 기사화를 부탁한다. 그와는 식사 한번 한 일이 없지만 서로 의중이 통하고 있었다. '타 방송과 경쟁 중'이란 걸 특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며칠 후 일간 스포츠에 기사가 실렸다. 대문짝만한 지면을 할애한 상세한 보도였다. 타 방송사와 경합 중이란 것도 강조했다. 실제로 MBC와의 계약 움직임을 감지한 민방에서 민방답게 '계약금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접근했는데 오히려 'MBC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을 뿐이다. KBS도 여러 기관을 통해 공동방송하자는 압력을 가했으나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문이 나간 날 아침 상무실에서 급히 호출하니 '당장 계약하라'고 했다. 예상 적중.

멕시코 월드컵은 예정대로 5월 31일 열리고 며칠 후 4편의 녹화 테이프가 도착한다.

개막전은 멕시코와 소련의 경기. 아쉽게도 0:0 무승부. 3일 후의 경기가 브라질과 체코의 경기 4:1 브라질 대승. 1970년 6월 7일 밤. 첫 일요일 저녁 7시. 순서를 무시하고 남미 축구의 제왕 브

라질과 동구 축구의 강호 체코의 경기를 첫날 방송한다. 대박이었다. 축구황제 펠레의 묘기를 처음 대하는 우리 시청자는 그의 묘기에 완전히 압도 당한다. 해외 축구 중계를 테이프로 처음 보는 시청자는 그 선명함에 놀란다. 게다가 양측 다섯 골 득점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환상적인 명경기였다. 득점 후 선수들의 거의 '광적'인 세리머니도 처음 대하는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아낌없이 열광하는 관중들의 환호하는 광경 또한 우리 시청자에게 그야말로 낮설고 새로웠다.

펠레가 무 각도의 코너 근처에서 휘어지는 슛을 성공시킨다. 처음 보는 묘기다. MBC의 명 축구 중계자 이철원 아나운서가 '바나나킥'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곧 유행어가 된다. 당대 최고의 축구 해설가 주영광 씨의 노련한 해설도 주목을 끈다. 그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주장 선수로 참가했었다. 그가 월드컵과 선수에 낯선 시청자들에게 해박한 지식과 정보로 시청자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줬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회사가 온통 난리다. 여기저기에서 어젯밤 경기를 두고 바글바글 화제다. 외부 전화들도 계속 울린다. '다음 경기는 언제 방송되느냐'는 문의 전화다.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나고 이삼일 안에 테이프를 긴급 공수해 총 36게임을 주 3회 방송해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번 대회를 '펠레의 대회'라고 외신들이 단정할 정도로 그가 맹활약한 브라질 팀은 1958년, 1962에 이어 세 번째 우승으로 '쥘 리메컵'을 영구 소유하게 된다. 브라질과 펠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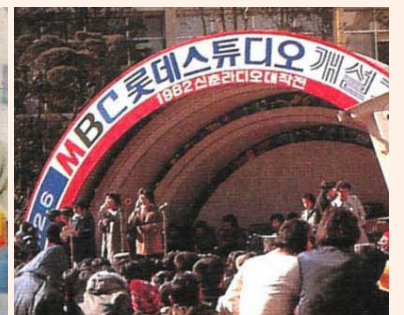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기와 묘기에 우리나라 축구 애호가들은 흠뻑 빠져 버린다. TV개국 초의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MBC에게 이 특집방송은 MBC의 존재를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선두주자였다. 방송이 종료되고 난 후 회사는 담당 부장과 방송 담당 PD들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개국 후 회사가 실무자들에게 수여하는 첫 포상이었다.

2년 후 1972년, 펠레가 한국에 왔다. 문화호텔 식당에서 그를 우연히 본다. 나는 본사에서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다. 팬들이 펠레와 함께 사진 찍고 싸인 받느라 법석이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모두에게 응대한다. 좀 조용해진 후, 나도 같이 찍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응한다. 내게는 남다른 감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내가 '멕시코 월드컵'을 처음 우리나라에 선보인 방송 책임자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신에 열광하는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는다. 그날 펠레와 찍은 사진은 내게는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사진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펠레가 방송에서 화제가 될 적마다, 월드컵이 다가올 적마다 사진을 찾아보지만 헛수고다.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 방에 걸었어야 했는데.

‘MBC롯데스튜디오’를 아십니까

1982년 2월 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자리한 '롯데호텔 프라자 썬킨가든'에 '보는 라디오'를 지향하는 MBC롯데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아홉 평 면적에 이중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스튜디오 오는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언제라도 생방송에 투입될 수 있게 설계됐다. 이곳에서는 "달려라 팔도강산(이종환 진행)"과 "바구니 대작전(김신숙 진행)"이 평일 2시간 30분씩 방송



됐는데,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했으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도 좋을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한류 태동기胎動期에 MBC가 있었다



안택호(편제)

K-Culture가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10년 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 음악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고 이때를 ‘한류 2.0시대’라고 했으니,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의 한국 드라마가 세계 미디어 시장의 최고 히트작이 되고 있는 지금은 ‘한류 3.0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한류 1.0시대’가 밑거름이 된 것이고 여기에는 ‘드라마 왕국 MBC’가 많은 부분 한류 태동기의 초석을 쌓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시절을 돌이켜 본다.

1984년 12월에 입사해 TV편성부에서 신입 시절을 보내고 1년 후 영화부로 옮겼다. 영화부는 외화더빙이 주 업무였고 외화 수입 업무는 부장이 거의 독점했다. 당시 영어에 자신이 있었고 호기심도 많아서 영어로 된 외화 계약서도 읽어보고, 외화 수입 과정에서 해외 영화사와 주고받는 텔렉스를 보도국 외신부에서 가져오는 메신저 업무를 자발적으로 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영문 텔렉스 초안을 작성해서 박진홍 부장께 보여드리곤 했다. 당시 외화 수입업무, 외화 자료조사, 텔렉스 문안 작성 등과 같은 업무는 대개 후배 PD들이 도맡았다.

‘86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해외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남북한 외교 대결이 상당히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무렵 외무부 요청으로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견본시장인 MIP-TV에 MBC가 자체 부스를 만들고 우리의 드라마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논의를 거쳐 〈MBC 베스트셀러극장〉 가운데 세 편을 골라 영어 자막 작업을 해서 MIP-TV 견본시에 내놓게 됐다. 칸의 행사장에 약 5평 정도 부스 임차계약을 하고, 부스 디자인은 미술부 세트 디자이너에게 맡기고 시공은 프랑스 현지의 인테리어 업자한테 의뢰했다. 드라마를 소개

하는 영문 브로슈어도 미국 헐리웃 영화 브로슈어를 참고해서 준비했다. 또한 부스를 장식할 화분, 집기류, 시사용 모니터 장비 등도 주문했다.

해외 견본시 프로그램 구매 출장이 처음인 영화부 정태일 부장과, 해외 드라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포상적 성격의 출장을 가게 된 드라마국 김지일, 김종학 두 PD와 함께 출장을 갔다. 네 명 중 나 혼자만 지난해 박진홍 부장과 칸 견본시에 출장을 다녀온 경험자였기에 걱정이 많았다.

게다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도 내가 유일해서 외화 구매 업무, 드라마 판매 업무 외에 드라마국 PD 두 명의 가이드 업무까지 몽땅 혼자 해야 할 형편이었다. 마침 대학 동기 이승권(현재 조선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군이 칸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엑상프로방스 대학에서 불어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줘서 그 친구 덕분에 정 부장과 나는 ‘외화 구매’와 ‘MBC 드라마 판매’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드라마국 두 PD는 불어를 잘하는 내 친구와 함께 칸 견본시를 한나절 정도 둘러본 뒤 칸 시내, 니스,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앙티브, 향수의 도시 그라스, 프랑스 남부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에 들어갔다.

당시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기에 MBC 부스를 찾아오는 바이어도 없었다. 아시아 콘텐츠 중에는 홍콩의 누와르 필름과 일본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다. 우리는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TV 드라마를 해외시장에 판매하러 온 처지라 행사장에서 걸어서 3~4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가격이 저렴한 3성급 호텔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에 비해 후지TV 자회사로 아동용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자랑하는 〈후지 에이트〉는 행사장 바로 앞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렌트카도 빌리고, 칸에서 요트를 빌려 행사장 근처의 바다에 띄어놓고 니스에서 개업 중

인 일본인 스시 요리사를 모셔와 바이어를 접대하는 정도로 세련된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86년 칸 출장을 다녀온 뒤 미국 2년 연수, 교양국 프로듀서, 편성기획부장 등의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수출업무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그리고 대략 20년의 세월이 흐른 2005년 4월, 글로벌본부 김재형 부장의 추천으로 칸에 다시 가게 됐다. 당시 한국 드라마가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MIP-TV 견본시에 Spotlights on Korea라는 세션을 마련하고 외국 바이어들을 초대했는데, 여기서 MBC 드라마 수출 성공사례를 “What Makes Korean Dramas So Hot?”라는 주제로 15분짜리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이다. 당시 내가 발표한 요지는 이랬다.

“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에 케이블, 위성 등의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콘텐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침 이 시기에 한국의 방송사들은 내부 경쟁을 통해 비교적 수준 높은 드라마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었고 이미 국내에서 제작비를 회수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폭발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의 내용은 헐리웃 드라마에 비해서 폭력적인 요소도 적고, 가족 사랑, 어른 공경, 순애보적인 러브 스토리 등의 주제여서 많은 나라에서 환영받았다.

그리고 한국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저작권을 〈先판매 後정산〉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자인 일본은 제작사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 저작권 해결을 못했고, 판매를 담당했던 방송사들이 소극적인 〈先정산 後판매〉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역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해외판매업무가 MBC 프로덕션에서 본사로 이관해 오면서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사업팀장이 됐다. 본격적인 한국 드라마 수출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장금〉



을 인도에 수출한 일이다. 애초에 인도의 국영방송사인 DOODAR SAN TV는 〈대장금〉을 구매해서 방송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POSCO가 인도 남부 오릿사 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POSCO에게 MBC가 〈대장금〉을 힌두어와 오릿사어로 더빙해서 인도 현지의 TV에 무료로 제공되고 거기에 POSCO 홍보광고를 삽입하고 그 댓가로 방송권료와 더빙 제작비는 POSCO가 MBC에게 지불하는 삼각 거래 방식을 제안해서 〈대장금〉 인도 방영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예상대로 〈대장금〉은 인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장금이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했다”는 인도의 어느 재소자가 인도 국영TV에 보낸 편지가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하지원, 이서진이 열연한 〈다모〉를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에서 DVD로 판매를 했고, 〈대장금〉을 이란에 수출하여 현지 시청률이 80%까지 나오기도 했다.

드라마 왕국 MBC의 드라마 수출은 그 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1991년 정부가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도입한 이후 MBC를 비롯한 지상파의 드라마 제작능력은 갈수록 약화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해외 판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외주제작사들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비약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 시장은 2011년 종편의 도입 이후 또 한 번의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 질적 성장을 이루고 오늘날과 같은 한류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국내 드라마 제작시장에서 지상파의 역할은 축소됐고 한류의 성공에 지상파의 공헌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